

# 월출산 케이블카 4년만에 재추진

## 영암군 “관광객 유치·쓰레기 회수” ... 300억원 투입 계획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4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영암군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 노약자들에게 산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월출산(해발 809m) 정상까지 관광용 케이블카를 운행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영암군은 천황사 주차장에서 천황봉과 사자봉 사이 1.5km구간을 비롯해 4~5개 구간을 대상으로 코스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케이블카 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오는 8월까지 월출산 모형도를 만들어 조망권이 가장 뛰어난

코스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군은 케이블카 설치시 200억~3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역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태 영암군수도 1일 간부회의에서 “월출산은 기암괴석과 절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명산이지만, 가파른 등정코스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관광객 유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 정상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 회수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케이블카 설치가 바람직하다”며 관계부서에서 케이블카 설치 사

업 검토를 주문했다. 영암지역 시민단체들도 케이블카 설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힘을 보태고 있다. 8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영암군사회단체협의회(회장 전갑홍)는 최근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대대적인 범군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보전 및 문화재 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다”면서 “나후면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소득 자원을 방지할 수 없어 생존권 차원에서 케이블카 설

치 사업을 지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어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쓰레기 회수도 쉽고 환경훼손도 줄어든다”면서 “문화재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없어질 때까지 전 군민의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월출산 내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암군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으나 환경단체와 문화재청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 “노화 방지에 좋은 마늘종이 나왔어요”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요즘 마늘 주산지인 고흥 도덕면 한 경매장에 마늘종이 쌓여있다. 마늘종은 노화방지과 함양효과가 있는 건강 식품으로 산지에서 2kg 한단에 2천~2천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 “강진에서 정약용을 만나자”

## 3~5일 제 8회 다산제 ... 목민심서 체험·유배행렬 등 재연

‘실학의 성지’ 강진에서 3일부터 5일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제 8회 다산제(茶山祭)가 열린다. 다산제 첫날에는 정약용의 유배행렬이 재연된다. 강진군은 3일 오후 3

시부터 강진을 다산공원에서 다산이 처음 강진에 유배돼 머물렀던 주막(4의재)까지 2km에 걸쳐 유배행렬을 재연한다. 이 주막은 다산이 4년간 거주했던 곳으로 지난해 복원됐다. 또 4일에는 조순 전 부총리의 ‘강진

이 없었다면, 다산은 없었을 것(若無康津 是無茶山)’이란 주제 특강을 비롯해 다산사랑 글짓기대회, 제 2회 수제차 품평대회, 다산 작은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이밖에 다산화단, 목민심서, 청자

물레성형, 짚공예, 천일염색 체험행사와 가훈 써주기, 다산 시화전, 다산 격언 전시회, 야생화·특산물 전시회, 향토음식관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강진역 강진군 축제팀 차장은 “정다산유적지 주변에는 백련사와 천연기념물 151호인 동백림, 철새 도래지인 강진만 등 볼거리가 산재해 있다”면서 “참가자들이 ‘남도답사 1번지’ 강진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관광지 정비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 “황금연휴 함평 나비·곤충엑스포에서”

## 5월 가족 단위 관광객 맞이 행사 다채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장에서 펼쳐진다. 5월 오후 2시에는 전국 125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예선전을 통과한 15개팀의 수준 높은 동요 경

연이 펼쳐지는 ‘제 4회 함평 나비 사랑 전국 어린이 동요제’가 열린다. 엑스포 주제관에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나비 장수풍뎅이, 딱정벌레 등으로 만든 멋있는 곤충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입체애니메이션 ‘아하! 나비구조

대’가 상영된다. 이밖에 가족 뮤지컬, 춤추는 나비 음악대 등의 무대공연과 판타스틱 나비퍼레이드, 캐릭터 퍼포먼스, 타이거 마스크 원장대, 고공 줄타기, 삐에로 마임쇼 상설공연이 주무대를 비롯한 엑스포공원 곳곳에서 열리며 13종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나비랜드’도 운영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전명운 의사 흉상·기념비 건립

##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친일 외교관인 미국인 더럽 스티븐스를 사살해 조선 독립정신을 국제사회에 알렸던 전명운 의사의 흉상과 기념비가 의거 100주년을 맞아 담양읍에 건립됐다. <사진> 전명운의사 기념사업회는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에 전 의사의 흉상·기념비를 세우고 오는 5일

제막식을 갖는다. 전 의사 종친들의 모금과 국비 등으로 600㎡ 부지에 세워진 조형물은 흉상과 기념문비로 이뤄졌으며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된다. 본관이 담양으로 1884년 서울에서 태어난 전 의사는 19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항일민족단체 공립협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1908년 장인환 의사와 함께 스티븐스를 저격했다. 이후 러시아 연해주,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거치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1947년 별세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3일 개막되는 제 10회 담양대나무축제 홍보차량이 광주역과 송정리역 등 광주지역 다중 이용시설에 등장했다. 대나무축제 홍보차량은 2일까지 광주지역을 돌며 대나무축제 홍보 영상물 등을 상영한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 보성군, 24일까지 ‘보성 녹차사랑 작품사진 콘테스트’

보성군이 오는 2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보성 녹차사랑 작품사진 콘테스트’를 연다. 이번 온라인 사진전은 보성녹차와 관련된 있는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보성관광지에서 가족, 연인, 친구 등과 사연이 있는 사진을 공모하고 있다. 콘테스트 사진은 보성군 홈페이지

(boseong.go.kr) 팝업창이나 엠파스 뉴스, 네이트닷컴, 네이트온 광고 등을 통해 이벤트에 접속,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네티즌 추천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이 되며, 대상(1명) 200만 원 등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보성=지광현기자 light64@

# AI 살처분·초소 근무 등 동원

## 나주시 공무원들 격무 시달려

나주시 공무원들이 AI(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여 일 가까이 현장에서 초소 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AI가 발생한 지난 달 17일부터 490여명의 직원들이 10개소의 초소에서 24시간 차량 및 통행인들을 통제하는 근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직원 1인당 3차례 이상 초소 근무에 나섰으며 살처분 작업에도 200여명이 동원됐다. 초소 근무의 경우 이동이 금지된

가족 및 축분, 사료 등을 통제하고 통행 차량 방역을 위해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등 6시간을 꼬박 근무해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민속회 계약직장은 “초소 근무 다 음날은 밀린 업무 때문에 밤 12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당초 직원들의 통제 초소 근무를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AI가 확산되자 오는 10일까지도 연장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청년 시장·군수·구청장

## ‘청목회’ 함평서 회의

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모임인 ‘청목회’ 회의가 2일부터 이틀 동안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회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회원 30여명과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목회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며, 청목회 특별회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청목회원과 함평군 공직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를 디자인하라’는 제목의 특강을 실시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